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음 3월 1일) 제17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문재인 '대세론' 굳혔다

▶ 민주당 호남 경선서 압도적 1위

23만6358표 중 60.2% 차지

지역에 뿌리내린 '반문정서' 해소 위한 노력이 승리 요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대선행 급행열차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투표소투표와 ARS투표, 순회투표를 합산해 전체 23만6358표 중 60.2%인 14만2343표를 차지했다. 안 지사와 이시장은 각각 20%와 19.6%를 얻는데 그쳤다.

문 전 대표 측은 호남권 경선에서 득표율 55~60%를 목표로 총력전을 벌여왔다. 과반수 득표로 '반문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호남권 선거인단은 전체 선거인단 214만명 중 27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호남이 지지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지지를 해왔고, 호남의 선택이 수도권 등으로 출향한 호남인들에게 일종의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호남의 선택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중 적지 않은 수가 호남 출신 또는 연고지라는 점에서 호남의 선택에 따라 수도권 선거인단의 표심도 출렁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호남권역 선출대회가 열린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티드체육관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획득한 문재인(왼쪽 두번째) 전 대표가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수 있었다.

문 전 대표 측이 민주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지만 민심의 향배에 따라 당심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경선 당시 호남에서 승리하면서 이인제 전 의원을 누르고 당 후보직을 거머쥘바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호남에서 문 전 대표의 과반 득표를 지지하면 문 전 대표의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고 '대세론'에 눌러 침묵하던 당내 비문세력이 결집해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왔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60%가 넘는 득표에 성공하면서 대세론은 더욱 굳건해졌다. 두 후보가 각각 지지를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내걸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추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이 '반문정서'에도 문 전 대표에게 60%에 달하는 지지를 보낸 것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대세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캠프 요직을 호남 출신 인사로 채우고 본인 과 부인이 수차례 호남을 찾아 지역민심을 훑는 등 반문정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한편, 문 전 대표가 '반문정서'의 영향으로 호남권에서 고전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 지사의 텃밭인 충청 정도만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득표율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뉴스시스

일제강점기 군산, 영상물로 만나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美콜롬비아 대학 소장 자료 공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1930년대 근대도시 군산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영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로 한국 영상자료원에 의해 지난해 발굴되었으며 최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자문협조가 함께 이루어져 28일자로 언론에 공개된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 속에는 신사광장(현 서초등학교)에서 훈련 중인 군견, 조선신탁주식회사의 은행원들, 일출운동장(현 구시장 뒤편)의 자전거 경주대회 모습 등 근대도시 군산의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근대화유산인 보유한 대표적 근대도시 군산에서 일제에 의해 자취되었던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인 군산항의 부잔교와 쌀 창고 등을 당시



의 생생한 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이밖에 군산도립병원, 군산 택시자동차 영업소, 전북수리조합 군산출장소, 안강방어선제작소의 모습도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작 미상의 기록영상이 군산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950년대 유엔 한국재건단 영화팀으로 군산을 방문한 시어

도너 코너트에 의해 수집되어 이후 콜롬비아 대학에 기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는 일제강점기 영상이 극히 드물고 특히 군산 관련자료는 최초 발견된 것으로 이번 기록영상은 근대 군산의 시대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 된다"며 "영상에 등장한 장소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영상을 박물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로컬푸드, 중소·고령농에 '큰 힘'

소비자 지역주민이 60% 차지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

로컬푸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농 및 고령농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로컬푸드가 중소농과 고령농에게 농업인으로서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농업과 농촌의 활력 증진으로 지역 유통구조를 재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전국 로컬푸드 매장 61개

의 운영 실태와 생산자·소비자 조사 결과 직매장의 80% 이상은 매출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하 생산자는 소농이 50%로 이들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중농 35%와 대농 15%로 중소농 활용이 많았다.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역주민이 60%로 가장 많고, 인근지역 소비자 30%, 관광객 10%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이 인근 중소농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구조를 보인 것이다.

또한 생산자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소량·비규격품 농산물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상품을 탐색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역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했다.

로컬푸드 활용에서 소비자의 경우 신선한 상품과 생산자에 대한 신뢰를 꼽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39.5%는 로컬푸드 이용 후 식품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직접적 효과에서 대도시 인근 직매장의 경우 매출이 연간 10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인근 직매장은 7억4000만원, 농촌지역 직매장은 4억7000만원이었다.

생산자는 가까운 로컬푸드로 출하하

면서 경비 절감과 소량이나 비규격품 판매도 가능한 점이 효과로 분석됐다.

또한 상품화를 증가로 발생하는 소득 증가와 생산자의 지역 내 소비지출 증가는 물론 로컬푸드의 일자리 창출도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생산자는 농업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소비자가 지역농업을 이해하면서 지자체는 농업과 식품으로 이분화된 먹거리 정책에 연계성을 높이는 등 지역민 교류의 장으로서 지역농업에 역동성과 유연성 및 지속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재물 기자

내달 27일 개최 전주국제영화제 개·폐막작 확정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JIFF)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 상영작이 공개됐다. <관련기사 12면>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4월 27일부터 10일간 전주에서 열리는 JIFF에는 총 58개국 229편(장편 179편·단편 50편)이 영화 마니아들을 만난다.

JIFF 조직위원회는 이날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폐막작 소개를 비롯해 프로그램 특징 등을 발표했다.

개막작은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폐막작은 '서바이벌 페밀리'로 확정됐다.

올해 개막작으로는 현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연극영화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알디코 엔데 감독의 장편 영화인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가 선정됐다.

폐막작은 지난 2월 일본에서 개막한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최신작인 '서바이벌 페밀리'가 상영된다. 야구치 감독은 '워터 보이스', '스윙걸즈'를 통해 대중적인 코미디 장르의 감각을 자유롭게 요리하는 감독으로 각광을 받았다. /정해은 기자



2017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행복한 도전이 있는 축제의 장”

일시 : 2017. 4. 9(일) 08:00
장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국제공인대회 : Full, Half, 10km, 5km
International Certified Marathon Race
42.195km, 21.0975km, 10km, 5km

참가신청기간 : 2017. 1. 15 ~ 3. 20(65일간)
마라톤사무국 : 063)465-7731, 02)418-7881

주최 : 대한육상연맹, 군산시 | 주관 : 전라북도육상연맹, 군산시체육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시육상연맹